www.kfta.net

KFTA

KOREA FISHERY TRADE ASSOCIATION

2025년 1분기 Vol.34

한국수산무역협회 소식지

주요사업 안내

제31회 한국산 김 입찰·상담회
리스크안전망 구축
수출기업 맞춤형 해외시장조사

스페셜 코너

제철 수산물 레시피: 톳, 숭어

한국수산무역협회
KOREA FISHERY TRADE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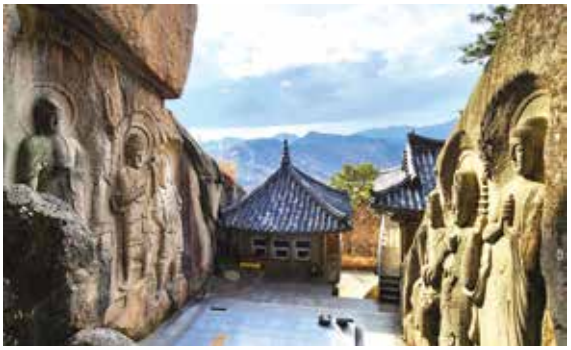
대한민국 수산물 수출입 발전에 한국수산무역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KFTA

2025. 1분기 Vol.34

한국수산무역협회 소식지 통권 제34호

발행처 한국수산무역협회 **발행인** 배기일 **주소** 06774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aT센터) 1103호
TEL 02) 6300-8901 **FAX** 02) 6300-8900 **이메일** kfta@kfta.net **홈페이지** www.kfta.net **디자인·인쇄** 크리커뮤니케이션 02) 2273-1775



CONTENTS

한국수산무역협회 근황

제39회 정기총회 개최 04
제14대 협회 임원(이사)소개 05
제14대 배기일 협회장 취임 인사 06

한국수산무역협회 회원사 근황

신규회원사 소개 07
우수회원사 소개 08

한국수산무역협회 주요사업 안내

제31회 한국산 김 입찰·상담회 10
리스크안전망 구축 11
K-Seafood 인바운드 마케팅 13
국내 공동물류센터 지원 13
수출기업 맞춤형 해외시장조사 14
K-Seafood Fair 14
부산국제수산EXPO 주관 15
수산물 TRQ 수입권공매·배분 16
할당관세 적용 추천 16

알아두면 좋은 수산물 수출입 Tip

미국, 전 세계 대상 상호관세 정책 발표 17
러시아, 비우호국가 특별관세 부과 대상 품목 확대 18

통계자료

국가별·품목별 수출통계 20
국가별·품목별 수입통계 21

국내외 수산 뉴스 22

스페셜 코너

제철 수산물 레시피 24
속담 속 바다 이야기 26
독자투고 28

협회 연락망 31

제39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수산무역협회 정기총회 성황리에 개최

협회 신임 임원진 구성

협회 정기총회 전경

한국수산무역협회(회장 배기일)는 2월 21일 금요일, aT센터에서 '제39회 정기총회'를 개최, 현 임원진 임기종료에 따른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였다.

이날 제14대 회장으로 배기일 현 회장이 연임되었고, KS수산식품㈜ 박기섭 대표이사 등 13명이 신임 이사로 선출되었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2024년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를 승인하고, 총 5,048백만 원 규모의 2025년 예산과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총회에서 확정한 올해의 사업계획을 보면, 우선 자체 사업으로서 제31회 한국산 김 입찰·상담회(5월)와 제23회 부산 국제수산 EXPO(11월)를 주관하며, 2026년 이후의 일본의 한국 김 수입할당(IQ)을 결정하는 한·일 정부 간 협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사업의 경우, 수출에서는 리스크 안전망 구축[1], K-씨푸드 인바운드 마케팅[2] 등 다양한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김 산업 전문기관[3]으로서 국제수산박람회 한국관 내 홍보관을 활용한 한국 김 우수성 홍보 등 다양한 김 수출·마케팅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수입 관리 분야의 경우 5개 FTA 저율관세할당 수입수산물 공매 등 정부위탁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

1) 환변동 보험 등 다양한 수출 보험료 90~100% 지원
2) 방한 관광객 대상 K-컬처 연계 K-씨푸드 밀착 홍보
3) 「김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 지정

제14대 협회 임원(이사)소개

회장 배 기 일

- 현)세화씨푸드㈜ 대표이사
- ㈜세화유통 대표이사
- 한국수산경영학회 부회장
- 중앙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위원
- 제24대 부산상공회의소 의원

부회장 정 두 영

- 현)원일수산식품㈜ 대표이사
- 한국수산개발공사 선장
- 한국양식협회 부회장
- 한국어업기술학회부회장

부회장 박 기 섭

- 현)KS수산식품㈜ 대표이사
- 부경대학교 겸임교수
- 해양수산부정책자문위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자문위원

전무이사 김 학 조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행정사무관
- 해양수산부 혁신행정담당관실 서기관
-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과장

이사 노 인 섭

- 현)재원글로벌넷 대표이사
- 우성식품 무역부
- ㈜우성 국내, 해외 영업부 총괄부장

이사 김 양 춘

- 현)기장물산㈜ 대표이사
- 한국수산물품질인증가공협회 회장
- 기장해조류연합회(영) 대표이사
- 부산바이오기업협회 회장

이사 이 상 구

- 현)㈜해물나라 대표이사
- 1996년 상인무역 대표

이사 양 희 문

- 현)다시마전복수산(영) 대표이사
- 완도군 수협
- 한국전복유통협회 초대회장
- 한국전복산업연합회 부회장
- 전복수출협의회 회장

이사 서 만 석

- 현)㈜석하 대표이사
- 삼광물산㈜ 상무이사
- ㈜부산명품수산물협회 회장

이사 정 현 택

- 현)㈜대창식품 대표이사
- (유)삼창산업 대표이사
- 목포상공회의소 상임의원

이사 김 수 환

- 현)㈜현이통상 대표이사
- 해태상사
- 현이푸드빌㈜ 대표이사
- 현이농산㈜ 대표이사

이사 김 재 수

- 현)㈜광천원김 대표이사
- 광천김생산자 조합장

이사 정 경 섭

- 현)감로수산(영) 대표이사
- 전)한국마른김생산자연합회 회장
- 전)한국김산업연합회 회장
- 해남군 수산조정위원회 위원

이사 권 태 우

- 현)㈜해우씨푸드 대표이사
- 태국 SEAFOODS ENTERPRICE CO. LTD 한국 주재원 근무
- 국제외식산업전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제14대
배기일 협회장 취임 인사

존경하는 회원사 대표님 여러분,

저는 2025년 2월 21일에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회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한국수산무역협회 제14대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우리 협회는 지난 1986년 수산물수출조합으로 발족하여 내년이면 연혁 40년을 맞이하는 중년 협회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협회가 발족할 당시부터 창립 멤버로 참여하여 지금까지 우리나라 수산무역의 발전에 일조하였다는 나름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재신임을 받으니 더욱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회원사 여러분,

저는 평생을 기업 현장에서 발로 뛰었고, 우리 회원사들의 어려운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회원사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지혜를 모아가면서 우리 수산식품 무역환경이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협회와 회원사 기업이 지속적으로 동반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후진 양성과 수산식품 해외시장 개척에도 열과 성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협회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회원사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수산무역협회
회장 **배 기 일** 배상

1/4분기 신규회원사 소개

회사명	대표자	TEL. / FAX.	주소. / e-mail	주요품목
선진수산(영)	정정진	061-276-1212 061-276-0091	전남 목포시 대양산단로125번길 126-9 sjhaohao@naver.com	김
왕가(어)㈜	최승영	041-952-8593 041-952-8599	충남 서천군 서면 신월길 131-19 wanggasc1@naver.com	김
㈜제이디지	이승래	064-745-1810 064-746-1810	제주 제주시 오복6길 7 admin@jdg.co.kr	냉동 수산물
신성씨푸드	배규찬	051-805-0529 051-334-0529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396번길 5-8 gaone0529@naver.com	건어물

안내 최근 글로벌시장의 높은 변동성에 따라 우리 수산물 수출입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수산무역협회에서는 회원사별 담당자를 지정, 매주 최대한 많은 회원사의 근황과 어려움을 여쭙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원사 여러분께서도 자사 주소나 연락처 변경 등 주요한 변경사항이 있으신 경우 협회와 공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수회원사

바다랑 해초랑
BADA & HAECHO

바다랑해초랑은 전남 고흥군의 청정해역에 위치한 해조류 가공 전문 기업이다. 미역, 다시마, 김 등 다양한 해조류를 건조, 절단, 염장, 분말 등의 방식으로 가공하여 B2B로 판매하며, 해조류의 세계화를 목표로 활발한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매출의 70% 이상이 수출에서 발생하며, 일본, 중국, 베트남, 태국,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에 생산 거점을 확보하여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바다랑해초랑은 ISO, 미 FDA, FSSC22000, HALAL 등 글로벌 인증을 획득하여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대상에 입점하여 청정미역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매년 국내외 박람회 및 상담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신규 바이어를 발굴하고 있다. 최근 3년간 10회 이상의 해외 박람회 및 판촉 행사에 참가하며 지속해서 해외시장을 개척해왔다.

R&D에도 집중하여 고흥산 해조류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가공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전문 연구 인력을 통해 특허 및 논문을 확보하며 기술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미활용 해조류 부산물을 활용한 생분해성 멀칭 필름, 해조 유산액 등 해조류의 소재화를 통해 지역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근 출시한 '바다그대로 미역자반'은 바다랑해초랑만의 차별화된 제품으로, 기존의 김자반이 아닌 미역을 활용한 자반이다. 미역 특유의 깊은 맛과 향을 살리면서도 고소하고 짭짤한 조화를 이루어, 남녀노소 누구나 밥과 함께 맛있게 즐길 수 있다.

바다랑해초랑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품질 혁신을 통해 세계적인 해조류 전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 "자연이 주는 건강한 먹거리를 바탕으로 더 좋은 제품, 더 넓은 시장, 더 큰 가치를 만들어가며 깨끗한 바다, 건강한 해조류에 함께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포부를 밝혔다. 바다랑해초랑의 앞으로의 행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라며 우수회원사 소개를 끝마친다.

제31회 한국산 김 입찰·상담회

제31회 일본 수출 한국산 김 입찰·상담회 한국에서 개최

2025년 5월 20일 화요일 서울 aT센터에서 개최

한국수산무역협회가 일본의 김 5개 단체와 공동 추진하며 우리 김의 일본 시장진출을 이끌어온 '한국산 김 입찰 상담회'가 올해로 31회를 맞이하며,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서울 aT센터에서 개최된다.

지난 제30회 '한국산 김 입찰 상담회'는 8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되어 2년 연속 우리나라 김 수출 1조 원 달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김 수출업체 65개사와 일본 김 수입업체 31개사가 참여, 전년 대비 75% 증가한 1,838억 원의 수출계약을 성사시킨 바 있다.

올해 제31회 입찰회는 한국 수출업체 68개사와 일본 수입업체 30여 개사 등 100여 개사가 참여할 계획이며, 올해도 입찰회 출품 마른김에 대한 협회의 관리강화를 통하여 한국 김에 대한 일본 수입업체의 신뢰성을 증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올해 수출계약도 전년도 이상의 성과를 기대하며 '한국산 김 입찰·상담회'는 오는 5월 20일 서울 aT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산 김 입찰·상담회 추진 계획

마른김 입찰회 출품표 등 수령	마른김 견본품 사전검품	마른김 현품 보관현황 점검	입찰·상담회 개최 세미 안내
~4.18.(금)	4.28.(월)~5.2.(금)	~5월 초	5.12.(월)

행사장 준비 및 마른김 견본품 수령	입찰·상담회 개최	일본 수입업체 현품 종람	마른김 낙찰분 수출이행현황 점검
5.19.(월)	5.20.(화)~22.(목)*	개별 안내	8~9월

*20일(대면), 21~22일(비대면)

입찰회 전경

상담회 전경

담당·문의_ 협회 수출지원부(TEL. 02-6300-8701~5 / FAX. 02-6300-8900)

리스크안전망 구축

리스크안전망 구축 지원

「리스크안전망 구축 지원」은 국내 영세 중소·중견 수산업체의 위험(급격한 시장변화, 미수금 발생 등)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급격한 환변동과 국제정세에 따른 고비용의 보험상품(환변동보험, 단기수출보험_개별)에 대한 업계 지원수요가 폭증, 지난 2024년 9월 61개사에 6억여 원을 지원하며 사업이 종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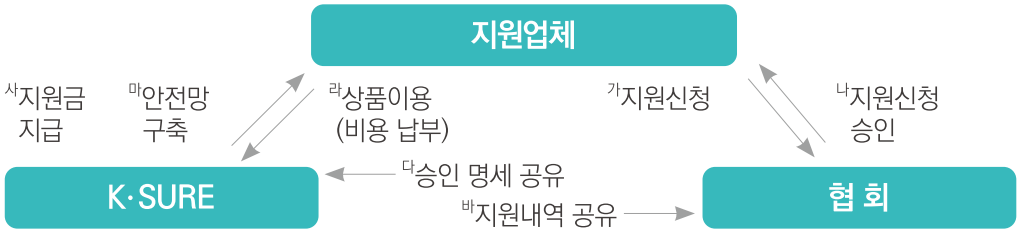
2025년에는 2월부터 온라인 사업신청 사이트(biz.k-seafoodtrade.kr)를 통해 지원희망업체를 모집 중이며, 업체당 종목별 부담 비용의 90~100%를 지원 중이다.(예산 소진 시 종료) 수산식품 수출 업체 또는 수출 예정 업체의 많은 관심 바란다.

2025년도 지원사항

구분	상품 예	목적	지원 대상	지원율(%)	한도(천 원)
미수금안전망(단체)	단기수출보험(단체)	미수금 발생 대비	중소 기업	100	업체당 45,000
환차손안전망	환변동보험	환차손 대비	중소·중견 기업	95	
미수금안전망(개별)	단기수출보험(개별)	미수금 발생 대비		90	
선급금안전망	수입보험	미인도 발생 대비		〃	
신용보증	수출신용보증	각종 필요 자금 확보		〃	

* 미수금안전망(단체)는 수출업체를 수익자로 협회가 K-SURE의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에 가입하는 종목으로 업체당 최대 U$200(약 240천 원)의 보험료 발생

안전망 구축 지원 흐름도



1) 안전망 구축 전(상품 이용 전) 지원 신청 : 가 → 나 → 다 → 라(자담만 납부) → 마 → 바
2) 안전망 구축 후(상품 이용 후) 지원 신청 : 라(전액 납부) → 마 → 가 → 나 → 다 → 사 → 바

리스크안전망 구축 교육

「찾아가는 리스크안전망 구축 교육」은 무역 관련 리스크 관리방안 및 필요성을 전파하기 위한 교육사업으로, 업체 직접 방문 및 국내 수산박람회와의 연계를 통해 수산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환율 및 무역거래 리스크 관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24년에는 제주, 부산지역에서 개최된 업체 직접 방문교육과 부산국제수산EXPO와 연계하여 진행된 안전망 구축 교육에서 총 193명이 수강하였다. 특히 「부산국제수산EXPO 연계 리스크 안전망 구축 교육」에서는 모든 회차(1~4강)에서 정원을 초과, 높은 관심을 끌었다.

2025년에는 2월부터 온라인 사업신청 사이트(biz.k-seafoodtrade.kr)를 통해 직접 찾아가는 리스크안전망 구축 교육 희망 업체를 모집하고 있으며,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부산국제수산EXPO 연계 리스크 안전망 구축 교육에서는 전년의 인기에 힘입어 교육장 규모 확장, 더욱 실무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현장교육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YOUTUBE 채널을 통해 「찾아가는 리스크 안전망 구축 교육영상」을 제작·배포하여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과 방법을 알리고 있으니, 업계의 많은 관심 바란다.

찾아가는 리스크안전망 구축 교육영상

1. **선물환 거래방법**
   (선물환거래 방법과 절차에 대해 학습)
2. **환변동보험 가입방법**
   (선물환거래와 환변동보험을 통한 관리방안 학습)
3. **환율예측 비법**
   (기술적 환율 예측방법의 일환인 이동평균법 소개)
4. **무역계약 위험관리방안**
   (신용조사를 통한 무역계약 위험관리방안 학습)

BISFE 연계 찾아가는 리스크안전망 구축 교육 전경

교육장 전경

리스크 안전망 구축 교육 현장

담당·문의_ 협회 수출지원부(TEL. 02-6300-8701~5 / FAX. 02-6300-8900)

K-Seafood 인바운드 마케팅

협회는 2025년 신규사업으로 「K-Seafood 인바운드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증가하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 수산식품의 인지도 제고 및 수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전 세계 인지도를 갖춘 보령 머드축제, 부산국제영화제에는 직접 참여 업체(각각 2개사)를 모집할 예정이고, 홍보·체험·시식·기념품 등 다양한 오프라인 홍보를 계획 중이다. APEC 및 서울콘에서는 수산식품 수출 브랜드대전 수상작 및 수출유망상품으로 선정된 제품들을 홍보할 예정이다.

» 주요 내용-홍보 플랫폼(안)

보령 머드축제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
7.25.(금)~8.10.(일)
(17일 중 10일 홍보)

부산국제영화제
(부산 BIFF 광장)
9.17.(수)~9.26.(금)
(10일 홍보)

2025 경주 APEC
(보문관광단지)
10월 말~11월 초
(10일 홍보)

서울콘
(서울 동대문역사문화공원)
12월 말
(3일 홍보)

* 참여 행사 및 상기 일정은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함

담당·문의_ 협회 수출지원부(TEL. 02-6300-8701~5 / FAX. 02-6300-8900)

국내 공동물류센터 지원

「국내 공동물류센터 지원」은 국내 활·신선 수산물 업체들의 적재한 인근 물류센터 임차를 지원하여 수출품의 경쟁력(신선도) 제고 및 이를 통한 주력 시장 기반 안정화와 신규시장 개척도모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인천(14개사), 부산(2개사), 강원(2개사), 서울(1개사), 완도(1개사)에 위치한 수조를 임차하고 있는 총 20개사를 지원하였으며, 지원 한도 및 비율 상향 및 지원 기간 증대로 활·신선 수산물 수출 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2025년에도 진행되는 동 사업은 지난 3월 7일까지 총 21개사가 지원 신청하여 모집이 마감되었으며, 지원 한도 상향 및 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업계의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담당·문의_ 협회 수출지원부(TEL. 02-6300-8701~5 / FAX. 02-6300-8900)

수출기업 맞춤형 해외시장조사

협회는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중소·중견 수산식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실적과 수요에 따라 시장분석형, 경쟁력분석형, 소비자분석형, 온라인 플랫폼 분석형 총 네 가지 유형의 맞춤형 조사보고서를 제공하여 시장경쟁력 강화와 수출성과로의 실질적인 연계를 도모하고자 한다.

올해는 온라인 플랫폼 분석형이 새롭게 추가되어, 수출기업이 비대면 유통 및 디지털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분석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급변하는 해외시장 소비 트렌드와 유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 맞춤형 해외시장조사 사업」을 통해 수출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지원대상	중소·중견 수산식품 수출기업	**조사기간**	업체별 연중 조사계획에 따름
지원건수	60건(업체당 연간 최대 5건 한도)	**조사건수**	총 60건
조사구분	시장분석형/경쟁력분석형/소비자분석형/온라인 플랫폼 분석형		
조사항목(안)	• **시장분석형** : 수출 희망국 환경, 특성, 수요, 시장성 등 파악 • **경쟁력분석형** : 현지 경쟁사, 경쟁제품 등 조사로 수출경쟁력 파악 • **소비자분석형** : 수출 희망국 바이어, 소비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등 • **온라인 플랫폼 분석형** : 수출 희망국 유통채널, 온라인 시장 트렌드 분석 등 * 바이어 정보, 해외기업 신용조사는 제외		

담당·문의_ 협회 수출지원부(TEL. 02-6300-8701~5 / FAX. 02-6300-8900)

K-Seafood Fair

한국 수산물에 대한 해외의 관심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협회는 K-Seafood Fair를 통해 세계시장에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 현지에서 직접 한국 수산물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판촉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수산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소비 확산을 유도한다.

아울러, K-Seafood Fair는 수출 유망국을 중심으로 마케팅에 집중함으로써 수산기업의 수출 기반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한다.

행사(안)	프랑스 K-Seafood Fair	몽골 K-Seafood Fair
기 간	2025년 6월 예정	2025년 11월 예정
장 소	프랑스 미식 페스티벌 연계	몽골 진출 한국 유통매장 연계
내 용	현지 유통 한국 수산식품 판촉 행사	현지 유통 한국 수산식품 판촉 행사

담당·문의_ 협회 수출지원부(TEL. 02-6300-8701~5 / FAX. 02-6300-8900)

부산국제수산EXPO 주관

11.5.(수)~.7.(금)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부산국제수산EXPO(BISFE)는 부산광역시에서 주최하며, 한국수산무역협회와 벡스코가 공동 주관하는 전시로 올해로 23회째 개최된다.

전시장 전경

부산국제수산EXPO는 아시아를 선도하는 수산 종합 무역박람회로, 국제전시연합(UFI)의 인증을 받아 많은 해외 바이어 및 셀러들이 우수한 국내 수산물을 찾기 위해 방문하는 박람회인 동시에 물류 허브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부산국제수산EXPO에서 진행되는 연계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 상담회와 더불어 국내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대·중소기업 비즈매칭데이는 참가업체들에게 매년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를 통해 BISFE는 수산인들에게 중요한 연례행사로 자리 잡게 되었다.

협회는 매년 성황리에 진행된 부산국제수산EXPO의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주관단체로서 국내 수산업체들의 판로개척과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인지도를 더욱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참가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참가부스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부분에서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두 개 주관사를 통하여 지원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참가 조기신청 기한은 5.30.(금)까지 이며, 해당 기간에는 20% 할인된 가격으로 참가가 가능하다. 이후에도 순차적으로 기간에 따른 차등 할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산국제수산EXPO 참가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라면 서둘러 신청하기를 바란다.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 진행 현장

제2회 KFIC 수출솔루션 세미나 현장

담당·문의_ 협회 부산지부(TEL.02-051-231-8806 / FAX. 051-231-8805)

수산물 TRQ 수입권공매·배분

협회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2025년도 FTA 5개 협정(중국, 베트남. 아세안, 뉴질랜드, 중미)의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TRQ) 및 수입권공매 입찰」을 진행하여, 총 40,910톤이 낙찰(연간 물량 72,553t 중 낙찰 누계 40,910t)되었다.

품목별 현황

수입권공매 결과

(단위 : 톤)

FTA 명칭 (원산지)	연간 물량 (A)	현재 낙찰 물량 (B)	잔량 (A-B)
합계	72,553	40,910	31,643
한-아세안	7,300	3,494	3,806
한-베트남	15,000	7,500	7,500
한-중	47,380	29,916	17,464
한-뉴질랜드	1,473	-	1,473
한-중미	1,400	-	1,400

한-중 수입권배분 배정실적

(단위 : 톤)

품 명	연간 물량 (A)	현재 배정 물량 (B)	잔량 (A-B)
합 계	2,077	729	1,348
바지락(염장, 염수장)	290	290	-
바지락(냉동)	330	330	-
복어(활어)	140	109	31
아귀(신선, 냉장)	17	-	17
오징어(기타)	1,300	-	1,300

Tip

TRQ란?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 저율관세율이 부과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기본 관세율이 부과되는 것으로 저율관세할당 물량, 시장접근 물량 등으로 불림

(1)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 TRQ'로 각종 안내 및 공고를 최우선 공지하오니 친구 추가 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2) 추가적인 입찰 및 배분 일정과 물량은 수입권관리시스템(https://susantrq.kr)에 수시로 게재됩니다.

담당·문의_ 협회 수입관리부(TEL. 02-6300-8804~5 / FAX. 02-6300-8700)

할당관세 적용 추천

새끼뱀장어(중간종묘)

우리 협회는 국내 뱀장어 양식 어가를 위해 관세법 제71조에 따라 선착순으로 새끼뱀장어(중간종묘)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진행하고 있다. 2025년도 4월 7일을 기준으로 0.68t을 추천하여 뱀장어 양식 어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품목	품명	HS 번호	2025년 물량	기본세율	추천세율
뱀장어	새끼뱀장어 (한 마리당 0.3~50g, 양식용으로 한정)	0301-92-2000	50t	5%	3%

Tip

할당관세란? 일정 기간 일정량의 수입품에 대해 일시적으로 기본 관세율에 더하거나 낮추어 부과하는 관세의 범위 내에서 가감

※ 할당관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www.kfta.net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문의_ 협회 수입관리부(TEL. 02-6300-8804~5 / FAX. 02-6300-8700)

알아두면 좋은 수산물 수출입 TIP

미국, 전 세계 대상 상호관세 정책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2일 오후 4시(EDT)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 부과 정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한 **기본관세 10%** 부과 → 적용시점2025년 4월 5일 오전 12시 1분(EDT)
국가별 **상호관세(한국 25%)** 부과 → 적용시점2025년 4월 9일 오전 12시 1분(EDT)
* (기본 10% + 개별 15%)

이는 기존의 모든 미국 무역협정 체제 내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예외 없이 적용되며,
행정명령에 별도로 명시된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 면제 품목(행정명령 제3조 (b항)) : ▲철강·알루미늄, ▲자동차·자동차 부품, ▲구리·의약품·반도체·목재,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 ▲금괴, ▲에너지 및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특정 광물 등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2025년 **4월 5일**부터 **기본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며,
4월 9일부터는 **25%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수산물도 이번 **상호관세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수출업계에서는 수출 대상국 다변화, 가격 재협상, 정부 지원사업 활용 등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 비우호국가 특별관세 부과 대상 품목 확대

2024년 12월 30일 러시아 정부는 비우호국*의 수입품목에 대한 특별관세를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2022년 12월 7일 러시아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조치를 취하는 국가에서 생산된 특정 상품에 대해 EAEU 단일 관세율과 달리 특별관세를 부과하는 법령(러시아연방 정부령 제2240호)을 시행한 바 있다.

*비우호국은 러시아 정부령 제430-r호(2022.03.05.)에 명시된 국가들로 한국, EU, 영국, 호주, 아이슬란드, 캐나다, 노르웨이, 뉴질랜드, 일본, 미국 등이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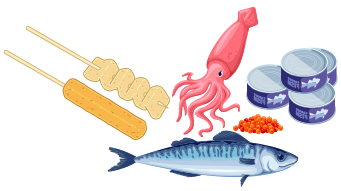
이번 법령 개정으로 육류, 채소, 과일, 커피 등 다양한 제품과 수산물 완제품(캔 제품 포함)이 특별관세 적용 대상으로 포함되었으며, 이번 조치는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되어 2025년 말까지 유효하다(러시아연방 정부령 제1989호).

개정된 법령에 따라 포함된 수산제품은 EAEU TN VED code 1604 및 1605 그룹에 해당되며, 품목별로 18~25%의 특별관세가 부과된다.

*참치 통조림 22.5%, 고등어 통조림 25% 등의 수산제품이 특별관세 적용 대상

한편, 러시아 정부는 2024년 11월 28일에 일부 비우호국에 대한 식품 금수조치를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금수조치 대상 국가에 뉴질랜드를 추가하는 법령(러시아연방 정부령 제1653호)을 개정하는 등 러시아에 비우호적인 조치를 취하는 국가들에 대해 수입 제재를 강화한 바 있다.

우리나라 수산식품 수출 영향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러시아 수산식품 수출은 97.0백만$로 우리나라 전체 수산식품 수출의 약 3.2%의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對러시아 1604/1605류 수출은 1.2백만$로 對러시아 전체 수출의 약 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對러시아 수출 비중이 크지 않아 1604/1605류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對러시아 수산식품 수출

(단위 : 백만$)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수산식품 전체	2,312.3	2,825.3	3,149.8	2,997.5	3,035.2
러시아 전체*	36.9 (1.6%)	54.1 (1.9%)	51.0 (1.6%)	67.2 (2.2%)	97.0 (3.2%)
1604/1605류**	1.0 (2.8%)	1.2 (2.2%)	1.2 (2.3%)	0.9 (1.3%)	1.2 (1.3%)

*주1 : 괄호 안의 수치는 우리나라 수산식품 전체 수출 대비 對러시아 전체 수출 비중을 의미
**주2 : 괄호 안의 수치는 對러시아 전체 수출 대비 對러시아 1604/1605류 수출 비중을 의미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원자료를 바탕으로 KMI 해외시장분석센터 재가공

우리나라의 對러시아 1604/1605류 품목별 수출은 어묵, 어류가공품, 참치 순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對러시아 1604/1605류 품목별 수출

(단위 : 천$)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604/1605류 전체	1,038.6	1,178.1	1,174.7	858.0	1,239.6
어묵	805.9 (77.6%)	1,072.8 (91.1%)	1,161.5 (98.9%)	689.9 (80.4%)	1,209.1 (97.5%)
어류가공품	0.4 (0.0%)	4.4 (0.4%)	0.9 (0.1%)	140.0 (16.3%)	27.4 (2.2%)
참치	121.5 (11.7%)	11.5 (1.0%)	5.4 (0.5%)	7.8 (2.1%)	1.4 (0.1%)
오징어	2.7 (0.3%)	16.3 (1.4%)	1.3 (0.1%)	4.2 (0.5%)	1.0 (0.1%)
게살	- (0.0%)	12.7 (1.1%)	- (0.0%)	- (0.0%)	- (0.0%)
고등어	- (0.0%)	0.0 (0.0%)	4.5 (0.4%)	- (0.0%)	- (0.0%)
게	26.5 (2.6%)	0.4 (0.0%)	- (0.0%)	0.0 (0.0%)	- (0.0%)
캐비아	- (0.0%)	5.3 (0.4%)	- (0.0%)	- (0.0%)	- (0.0%)
꽁치	77.7 (7.5%)	35.3 (3.0%)	- (0.0%)	1.2 (0.1%)	- (0.0%)
멸치	3.8 (0.4%)	5.1 (0.4%)	- (0.0%)	- (0.0%)	- (0.0%)

주: 괄호 안의 수치는 對러시아 1604/1605류 전체 수출 대비 1604/1605류 품목별 수출 비중을 의미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원자료를 바탕으로 KMI 해외시장분석센터 재가공

이번 특별관세 부과 대상 확대는 식품 금수조치 연장과 함께 비우호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자국 산업 육성과 세수 확대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러시아 내에서도 수입제품에 대한 수요가 여전하기에 특별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러시아 자국 내 물가 또한 부정적인 영향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對러시아 1604/1605류 수출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러시아 정부의 법령이 추가적으로 발표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현지 제도의 개정 및 업데이트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 글로벌진출·전략팀 양이석 팀장(yys1860@kmi.re.kr/051-797-4909)

한국수산무역협회 소식지
2025.04 Vol.34

통계자료 – 수출

국가별 수출 통계

(단위 : 톤, 천 불, %)

구분		2024년	2024년(1~2월)	2025년(1~2월)	증감	증감률
전체	**물량**	**740,244**	**114,812**	**114,660**	**△152**	**△0.1**
	금액	**3,034,198**	**459,447**	**479,940**	**20,493**	**4.5**
중국	물량	175,538	24,535	18,565	△5,970	△24.3
	금액	527,120	81,344	85,438	4,094	5.0
미국	물량	33,046	5,927	6,076	149	2.5
	금액	479,081	69,773	80,527	10,754	15.4
일본	물량	107,783	15,197	17,108	1,911	12.6
	금액	659,156	100,089	77,324	△22,765	△22.7
태국	물량	129,577	22,497	15,976	△6,521	△29.0
	금액	256,386	39,213	45,451	6,239	15.9
베트남	물량	69,780	14,479	9,866	△4,613	△31.9
	금액	217,569	37,329	34,369	△2,960	△7.9
러시아	물량	9,113	1,971	1,725	△246	△12.5
	금액	96,989	11,910	17,881	5,970	50.1
가나	물량	23,878	4,723	13,335	8,612	182.4
	금액	25,280	4,916	13,719	8,803	179.1
대만	물량	5,894	986	989	3	0.3
	금액	78,123	12,248	13,567	1,319	10.8
인도네시아	물량	17,203	2,309	2,538	229	9.9
	금액	60,394	9,510	9,762	252	2.6
프랑스	물량	5,078	727	740	13	1.8
	금액	60,262	8,180	9,677	1,497	18.3

품목별 수출 통계

(단위 : 톤, 천 불, %)

구분		2024년	2024년(1~2월)	2025년(1~2월)	증감	증감률
전체	**물량**	**740,244**	**114,812**	**114,660**	**△152**	**△0.1**
	금액	**3,034,198**	**459,447**	**479,940**	**20,493**	**4.5**
김	물량	33,885	6,066	6,528	462	7.6
	금액	997,027	141,478	181,574	40,096	28.3
참치	물량	232,842	43,265	21,598	△21,667	△50.1
	금액	589,329	102,315	65,903	△36,412	△35.6
고등어	물량	78,768	9,682	25,219	15,537	160.5
	금액	87,422	11,058	27,341	16,283	147.2
게	물량	1,955	344	354	10	2.8
	금액	74,746	17,353	17,200	△153	△0.9
오징어	물량	16,752	837	3,829	2,992	357.4
	금액	76,258	4,909	15,888	10,978	223.6
삼치	물량	29,692	4,145	4,340	195	4.7
	금액	79,442	16,402	12,371	△4,032	△24.6
이빨고기	물량	2,418	338	365	26	7.8
	금액	71,031	9,615	11,683	2,069	21.5
넙치	물량	4,970	617	656	39	6.4
	금액	53,142	7,603	8,225	622	8.2
어묵	물량	10,761	1,942	1,907	△35	△1.8
	금액	41,066	7,467	6,586	△881	△11.8
전복	물량	2,954	377	397	20	5.3
	금액	55,474	8,188	6,544	△1,643	△20.1

통계자료 – 수입

국가별 수입 통계

(단위 : 톤, 천 불, %)

구분		2024년	2024년(1~2월)	2025년(1~2월)	증감	증감률
전체	**물량**	**6,262,348**	**1,125,197**	**1,214,167**	**88,970**	**7.9**
	금액	**5,984,628**	**1,005,514**	**1,016,777**	**11,264**	**1.1**
중국	물량	867,092	165,065	178,245	13,180	8.0
	금액	1,450,754	239,050	241,019	1,969	0.8
러시아	물량	285,111	54,048	45,604	△8,443	△15.6
	금액	906,428	158,905	141,263	△17,642	△11.1
베트남	물량	176,761	27,604	25,119	△2,484	△9.0
	금액	820,087	130,432	117,798	△12,634	△9.7
노르웨이	물량	73,974	13,367	17,027	3,660	27.4
	금액	555,523	100,808	108,414	7,605	7.5
홍콩	물량	10	3	7	4	154.7
	금액	88,573	41,158	65,822	24,664	59.9
칠레	물량	57,992	6,173	9,958	3,784	61.3
	금액	171,468	21,829	36,816	14,987	68.7
일본	물량	38,788	5,503	7,640	2,136	38.8
	금액	194,419	31,145	35,864	4,719	15.2
인도	물량	2,819,268	621,287	611,348	△9,939	△1.6
	금액	169,349	36,896	30,892	△6,004	△16.3
미국	물량	59,216	9,237	5,714	△3,523	△38.1
	금액	210,494	32,437	22,708	△9,729	△30.0
태국	물량	20,997	3,208	2,913	△295	△9.2
	금액	144,141	24,598	21,691	△2,907	△11.8

품목별 수입 통계

(단위 : 톤, 천 불, %)

구분		2024년	2024년(1~2월)	2025년(1~2월)	증감	증감률
전체	**물량**	**6,262,348**	**1,125,197**	**1,214,167**	**88,970**	**7.9**
	금액	**5,984,628**	**1,005,514**	**1,016,777**	**11,264**	**1.1**
연어	물량	45,885	9,699	7,478	△2,221	△22.9
	금액	506,900	97,616	88,342	△9,274	△9.5
실장어	물량	22	3	8	4	131.3
	금액	97,218	41,277	67,514	26,237	63.6
오징어	물량	139,825	21,340	15,180	△6,160	△28.9
	금액	481,662	70,915	60,149	△10,766	△15.2
새우	물량	60,954	9,755	8,192	△1,563	△16.0
	금액	358,123	60,412	55,165	△5,246	△8.7
새우살	물량	44,023	6,756	6,649	△107	△1.6
	금액	341,080	52,490	55,005	2,515	4.8
명태	물량	199,722	38,659	31,803	△6,855	△17.7
	금액	351,750	62,605	51,815	△10,790	△17.2
참치	물량	23,248	3,510	3,941	431	12.3
	금액	192,383	17,457	49,163	31,705	181.6
소금	물량	4,855,407	880,050	987,229	107,179	12.2
	금액	253,399	45,877	47,408	1,531	3.3
고등어	물량	45,004	9,267	13,844	4,577	49.4
	금액	123,087	23,467	39,803	16,336	69.6
게	물량	7,849	1,661	1,523	△138	△8.3
	금액	148,288	26,339	32,648	6,309	24.0

재정 3,000억 원 투입, 거점 조성으로 다시 뛰는 우리 어촌

- 해양수산부는 2월 26일(수) '2025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신규 대상지 25개소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어촌 300개소를 대상으로 총 3조 원을 투자하여 공간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사업은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유형1;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유형2; 유입 인구 정착 및 생활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유형3; 어촌 안전사고 예방 안전시설 개선) 등 3개 유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 금년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연안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11개 시·도, 41개 시·군·구에서 총 98개소의 후보지를 신청하였으며, 해양수산부는 3개월간의 평가를 거쳐 사업지 25개소를 최종 선정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http://www.mof.go.kr)를 참고.

수산 분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 소통의 장이 열린다

-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올해는 어업 현장 중심의 후속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에 2월부터 4월까지 신규사업과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권역별 기후변화 포럼을 개최한다.

*권역별 1회씩, 총 6개 권역 ①전남, ②제주, ③충남·전북, ④강원·경북·울산, ⑤경기·인천, ⑥부산·경남

- 아울러, 동 포럼 이후 낚시어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점검도 실시한다. 봄철 낚시 활동 개시에 대비하여 안전설비와 승선자명부 작성, 출입항 신고 절차 등 안전관리 이행 현황을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 최현호 어업자원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해 어업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으며, 우리 수산업이 기후변화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어종별 특성을 고려한 후속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http://www.mof.go.kr)를 참고.

인도네시아, 해산물 수출 규제 강화…업계 부담 가중

- 인도네시아 정부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 해산물 수출업체들은 더욱 엄격한 품질 및 추적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 증가와 절차의 복잡성이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조치는 단순 원재료 수출에서 벗어나 가공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의 전략적 목표의 일환이지만, 업계에서는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 시장 접근성이 낮아지고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해산물 시장에서 인도네시아 제품의 가격과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업계와 정부 간의 긴밀한 협의가 요구된다.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 해산물 생산국 중 하나인 만큼, 이번 조치가 해산물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수산물수출정보포털(http://www.kfishinfo.co.kr)을 참고.

미·캐나다 해산물 무역, 관세 갈등으로 위기 직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대응해 캐나다는 미국산 제품 200억 달러 규모에 25%의 보복 관세를 발표했으나, 30일간 보류하기로 합의했다.
- 이러한 관세 조치로 인해 해산물 업계는 가격 상승, 시장 접근성 제한, 고용 불안 등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 해산물 교역이 활발한 상황이지만 2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캐나다는 대체 공급처를 찾거나 수입량을 줄이면서 미국산 해산물 공급이 과잉될 위험이 있다.
- 현재 겨울철 생산량이 적어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봄철 성수기까지 관세가 유지될 경우 해산물 무역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자세한 내용은 수산물수출정보포털(http://www.kfishinfo.co.kr)을 참고.

일본 야마구치현, 중국산 미역 혼입 업체 행정지도

- 일본의 야마구치현은 2월 4일(화), 식품표시법의 원산지 표시 방법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하고 표시의 시정과 원인 해명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업체는 미역가공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일본산과 중국산을 혼입하였으나, 원산지에는 일본산(미야기현, 이와테현)으로만 표기하여 판매했다.
- 해당 업체는 조사 과정에서 작년 2월부터 10월까지 약 303톤의 미역을 유통한 것으로 파악되며, "산리쿠산(일본산) 미역의 가격 급등으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져 중국산 미역을 혼입"했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수산물수출정보포털(http://www.kfishinfo.co.kr)을 참고.

베트남 참치 부족, 해산물 수출 성장에 걸림돌

- 베트남의 참치 산업이 최근 원료 부족과 시장접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새롭게 도입된 참치 최소 크기 규정이 어업인과 기업의 생산·영업 활동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급망 전반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 베트남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 국회 부의장 레 민 호안은 참치 및 기타 수산물의 최소 크기 규정이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유럽연합 진행위원회(EC)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규정은 불법 어업 방지, 남획 제한, 어업 도구 및 그물망 크기 개선을 통해 수산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글로벌 수산 관리 추세와도 맞닿아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수산물수출정보포털(http://www.kfishinfo.co.kr)을 참고.

제철 수산물이 좋다!

특정 시기나 계절에만 얻을 수 있는 채소, 과일, 해산물 등을 제철 음식이라고 한다. 열매가 맺히는 시기이거나 한창 살이 올라서 맛이 좋은 시기가 제철이다. 나물은 부드러운 새순이 나는 시기가 제철이고 생선은 알을 낳을 시기가 되어 살이 통통하게 올랐을 때가 제철이다. 반대로 조개는 알을 낳는 시기에는 독성이 있어서 피해야 한다. 오늘은 봄 바다의 제철 음식으로 입맛을 돋우어 보는 건 어떨까?

1

면역력 높이는 바다 채소
톳

환절기인 봄철에는 면역력을 높이는 데 신경써야 한다. 바다의 채소로 불리는 해조류 중 톳은 지역에 따라 따시래기, 뚤배기, 몰, 톨이라고도 불린다. 톳의 모양이 사슴 꼬리와 비슷하다고 하여 사슴의 녹(鹿) 꼬리의 미(尾)를 따 녹미채라고도 불린다.

톳은 칼슘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우유, 시금치와 견주어도 될 만큼 칼슘과 철분이 풍부하다. 하여, 성장이 어린이와 노인의 뼈 건강을 지키는데 좋다. 또한, 면역력 증진과 항암 효과가 있는 후코이단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혈관에 콜레스테롤과 중금속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도 한다.

재료 톳 200g, 표고버섯 10개, 쌀 1컵, 당근 1큰술, 맛술 1큰술, 물 1컵, 참기름 약간, 소금 약간

양념: 달래, 간장 2큰술, 참기름 1/2큰술, 올리고당 1/2큰술, 통깨 약간

톳버섯밥 조리방법

1. 톳은 물에 불린 뒤 작게 썰고, 표고버섯과 당근도 작게 다진다.
2. 불린 쌀과 ❶의 표고버섯을 냄비에 넣고, 맛술과 참기름을 넣어 중불에 볶는다.
3. ❷의 쌀이 하얗게 변하면 물을 넣고, 끓어오르면 ❶의 당근과 톳을 넣어 중불에서 7분가량 익힌다.
4. ❸의 불을 약불로 줄이고 10분 정도 뜸들인다.
5. 밥이 뜸드는 동안 준비된 분량의 양념을 넣고 섞어 양념장을 만든다.

2

찰진맛을 가진 봄의 전령

숭어

숭어는 봄철, 가장 맛이 좋으면서도 가격도 저렴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생선이다. 숭어라는 임금님께 진상하던 생선이라는 이유로 숭어(崇漁)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또한, 모양이 빼어나고 길며, 100가지 생선 중 가장 뛰어나다고 하여 수어(秀漁)라고 부르기도 했다. 숭어는 크게 표준명 숭어와 표준명 가숭어로 나뉘는데, 봄에 제철을 맞는 숭어는 표준명 숭어이다. 표준명 숭어는 보리가 익어가는 계절까지 맛이 좋아 보리숭어 또는 개숭어라 불리기도 한다. 숭어는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해 빈혈 예방에 효과가 있다. 특히 DHA와 EPA 함량이 높아 심장병, 동맥경화 등 혈관질환 예방에도 좋다. 또 고가라고 알려진 어란의 재료도 이 숭어의 알이다.

재료 매생이, 굴, 떡국떡, 소금, 홍고추, 풋고추, 대파, 다진 마늘, 참기름

어란

숭어매운탕 조리방법

1. 무는 얇게 썰고, 애호박과 쑥갓, 미나리, 대파, 홍고추, 풋고추, 두부는 적당한 크기로 썬다.
2. 숭어는 꼬리와 지느러미, 내장과 비늘을 제거하고 깨끗한 물에 헹군 뒤, 적당한 크기로 토막낸다.
3. 냄비에 적당량의 물을 넣고, 무와 다시마, 멸치를 넣어 육수를 우려낸다.
4. 3이 우러날 동안 준비한 분량의 양념을 섞어 양념장을 만든다.
5. 3이 끓으면 멸치와 다시마를 건져내고, 4의 양념을 푼 다음 숭어와 애호박을 넣어 끓인다.
6. 5가 끓으면 두부와 홍고추, 풋고추, 대파를 넣고 끓어오르면 쑥갓과 미나리를 넣고 소금간한다.

가질 수 없는 그림의 떡

꼬막

“고양이 꼬막조개 보듯”
속뜻이 없이 겉으로만 대강대강 함을 이르는 말

조개류 중에서도 바지락과 함께 가장 식탁에 많이 오르는 조개는 역시 꼬막 종류이다. 꼬막은 돌조개목(目과) 돌조개과(科)의 조개로, 돌조개과에는 꼬막, 새꼬막, 피조개의 3종류가 있다.
꼬막은 이들 중에서 가장 작은 조개로 크기는 밤톨만 하고, 껍데기에는 열 일고여덟 줄의 큰 골이 부챗살처럼 퍼져있어 서른두세 줄의 새꼬막이나 마흔두 줄 안팎의 피조개와 쉽게 구별할 수 있다.

꼬막은 껍데기에 패인 골이 기와집의 기왓골을 닮았다 하여 와옥자(瓦屋子) 또는 와롱자(瓦壟子)로 불리기도 하지만 ‘안이 꼭꼭 채워진 조개, 살이 가득 차 있는 조개’라는 뜻으로 살조개 또는 안다미조개로도 불린다. 그렇다면 ‘안다미’란 무슨 뜻일까? 우리말 사전에 ‘안다미로’는 ‘담은 분량이 그릇에 넘치도록 많게’라는 뜻을 가진 부사어로 나타나 있다. 안다미란 말은 그릇 안(內)을 꼭꼭 채워 담는다는 뜻인 ‘안담이’에 부사격 조사 ‘로’가 붙은 안다미로에서 파생된 말인 듯하다.

꼬막은 전라도 지방의 특산물이다. 세종실록 지리지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전라도의 토산물로 올라와 있는데, 이 지방에선 제사상에 올린다 해서 ‘제사꼬막’이라 부르기도 한다. ‘감기 석 달에 입맛이 소태 같아도 꼬막 맛은 변함없다.’거나 ‘꼬막 맛이 떨어지면 이미 죽은 사람’이란 말이 전해질 정도로 이 지방 사람들은 누구나 즐기며 귀하게 여긴다. 반면에 새꼬막은 (참)꼬막에 비하여 맛이 다소 떨어지므로 ‘개꼬막’이나 ‘똥꼬막’등의 험한 별명으로 불리기도 한다.

꼬막은 가을 찬바람이 갯벌을 감쌀 때 비로소 쫄깃한 맛이 들기 시작하는데, 한겨울 설을 전후해서 속이 꽉 찰 정도로 탱탱해지고 알을 품기 직전인 봄까지 좋은 맛을 유지한다. “바지락과 꼬막은 진달래와 벚꽃이 필 때부터 질 때까지 가장 맛있지라.”는 말은 꼬막이 맛있는 시기를 가장 잘 나타낸 말이다.

우리 속담에 ‘고양이 꼬막조개 보듯’이란 말도 있다. 속뜻이 없이 겉으로만 대강대강 함을 이르는 말이다. 고양이에게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꼬막은 돌멩이와 다름이 없고,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그림의 떡(畵中之餠)과 같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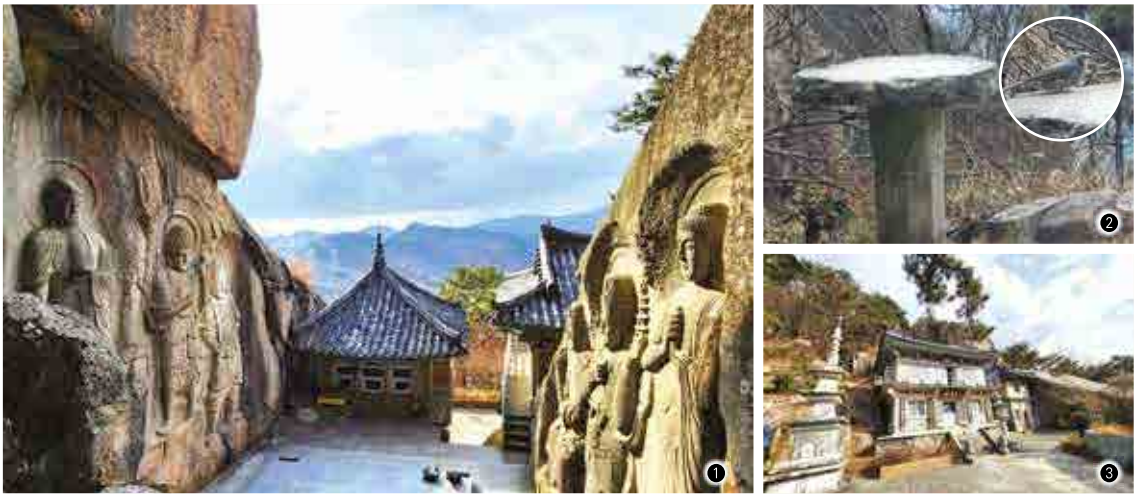
출처 : 속담 속 바다 이야기
(국립수산과학원 발행)

팔도 이색 사찰 탐방

(사)한국수산무역협회 차장 **박상형**

최근에는 본인의 취향에 맞춰 인플루언서나 유튜브 채널을 검색하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방방곡곡을 찾아볼 수가 있다. 그러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내 눈으로 실제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여행이 아닐까 생각한다. 팔도 유랑을 하다 보면 당연히 식도락도 중요하지만, 역사가 깃든 숨은 명소를 찾아서 관광하는 것도 여행의 묘미일 것이다. 그래서 인상 깊었던 몇몇 장소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부산 병풍암 석불사



❶ 산령각에서 바라본 풍경 ❷ 쌀알을 먹으며 쉬고 있는 새 ❸ 석불사 대웅전 ❹ 부처상과 16나한 전경

부산의 필수 관광 유명사찰을 생각하면 통도사, 범어사, 용궁사를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부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찰로 석불사를 한 번쯤은 가보길 추천해 드린다. 여행 매거진 '론리 플래닛'에 아시아의 비경으로 선정되고, BTS 정국의 산책길로 더 유명한 곳으로 부산을 찾는 방한 관광객들에게 필수 코스이다.

석불사는 1930년경(일제강점기) 조일현이 주지로 있으면서 암벽을 깎아 조성한 석불로 유명한 사찰이다. 단위 사찰 중 석불상(29위)이 가장 많은 곳으로 국내 최고(最高)의 유일한 마애불군 사찰이다. 아울러, 돌로만 지어진 대웅전, 칠성각도 이색적이다.

날씨가 좋으면 11km 떨어진 광안대교도 보이는 석불사는 새들도 쌀알을 먹으며 쉬어가는 곳으로 방문을 적극 추천한다.

방문 방법

• **주소** : 부산 북구 만덕고개길 143-96 석불사

• 접근 방법

- 지하철 3호선 만덕역 하차 후 2.5km 1시간 도보
- 부산 북구 만덕동 산 77-1 무료 주차 후 1km 30분 도보
- 석불사 약 100m 아래 주차공간 10여 대 무료 주차 가능 도보 4분

대구 비슬산 대견사

❶ 대견사 정상 참꽃(진달래) 군락지 ❷ 대견사 삼층 석탑 ❸ 부처바위(좌) 및 삼층석탑(우) ❹ 대견사 적멸보궁

대견사가 자리한 비슬산은 우리나라 100대 명산 중의 한 곳으로 봄에는 분홍의 참꽃(진달래) 군락으로 장관을 이루는 곳이다. 대견사를 오르다 보면 천연기념물인 비슬산 암괴류도 볼 수 있다.

대견사는 당나라 문종이 절터를 찾다 사신을 보내 신라에서 찾은 장소로 대국(당나라)에서도 보였던 절터라고 해서 大見寺라 칭했다고 한다. 대견사는 서기 810년 신라 헌덕왕 때 창건된 사찰로서 고려 말 몽고의 침입으로 폐허가 되었고, 1371년 중창(重創)하였다. 그러나, 한일합방 후 비슬산의 산세와 대견사가 대마도를 당기고, 일본의 기를 꺾는다는 속설에 의거 1917년 6월 23일 강제 폐사 후 약 100여 년 동안 폐사지로 방치되었던 곳이다. 그러다 민(동화사)-관(달성군)의 협력으로 2014년 삼일절날 대견사는 복원되었다. 하늘가 맞닿은 사찰로 유명한 설악 봉정암, 비슬산 대견사는 "北봉정, 南대견"이라 불릴 만큼 전국 최고의 기도 도량 장소이다.

벚꽃이 피고, 진달래꽃이 핀다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비슬산 참꽃 군락지와 대견사를 꼭 눈에 담아보길 바란다.

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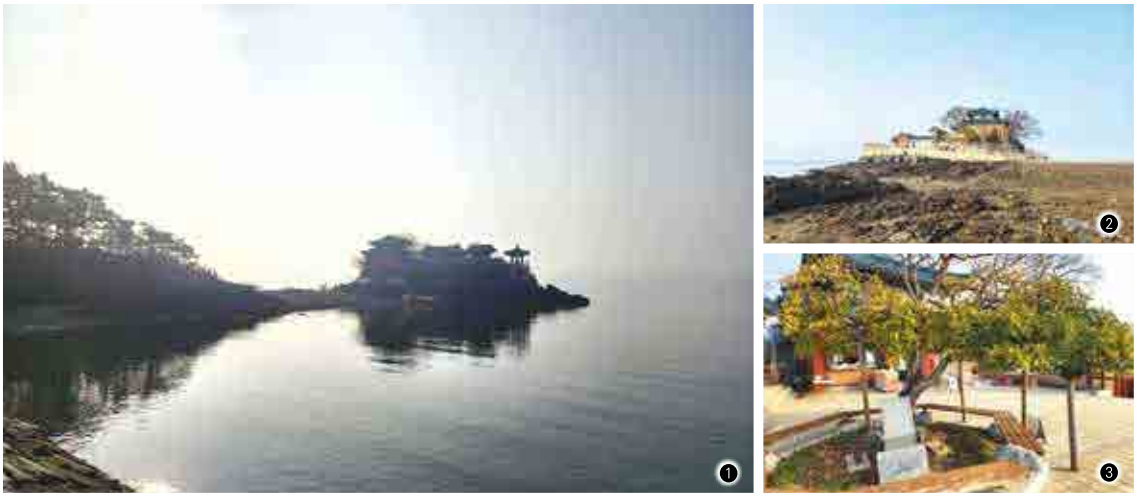
방문 방법

• 주소 : 대구 달성군 유가읍 일연선사길 177 대견사

• 접근 방법

- 비슬산 자연휴양림 공영주차장(대구 달성군 유가읍 휴양림길 236)
- 무료 주차 후 3.3km 2시간 도보 또는 유료 전기차 셔틀버스 이용

충남 서산 간월암



❶ 바닷길이 열린 간월암 전경 ❷ 간월도 간월암 전경 ❸ 무학대사 지팡이(250년 사철나무) ❹ 관음전

마지막으로 소개할 간월암은 일반적으로 2가지 정도가 유명한 사찰이다.

낙조와 월광이 아름다운 암자 또는 바닷길이 열려야 입도할 수 있는 암자!

그보다 더 유명한 역사적 사실을 간단히 소개하겠다. 조선 개국 및 한양 천도를 주도한 공신 무학대사가 이곳에서 수행 중 달을 보고 홀연히 득도하였다 해서 간월암(看月庵)이 되었다는 사실과 다른 하나는 조선의 억불정책으로 폐사된 사찰을 1941년 만공스님이 중창 불사하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 천일기도(1942.8.~1945.8.) 드린 뒤 3일 후 조국이 독립을 맞이했다는 사실이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리다 피곤하다면, 서산 간월암의 멋진 풍경을 보며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을 것이다.

Tip) 간월암 누리집에서 방문할 수 있는 물 때 시간을 꼭! 확인 바란다

❹

방문 방법

- **주소** : 충남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1길 119-29
- **접근 방법**

– 서해안고속도로 홍성TG → 천수만로(96번 지방도) 이용
– 주차장 : 충남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 26-17
– 간월암 인근 무료 주차 후 도보 3분

안 내

(사)한국수산무역협회는 소식지 내에 임직원 및 회원사 여러분이 참여 가능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진 혹은 시·수필(독후감, 여행기, 영화감상문 등 포함) 등 장르에 구애되지 않고 기고문을 제공하여 주시는 분께는 채택될 경우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전달 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출처 : 대리 염승민(02-6300-8803 / kfta@kfta.net)

한국수산무역협회
임직원 전화번호

TEL. 02)6300-8901
FAX. 02)6300-8900
E-mail. kfta@kfta.net

경영 지원부

전무이사	김학조	02-6300-8601
상무	박종근	02-6300-8602
과장	박애경	02-6300-8603

회원관리, 수산발전기금 등

수출 지원부

차장	박상형	02-6300-8702
차장	최승호	02-6300-8703
주임	장희재	02-6300-8704
주임	강지호	02-6300-8705

대일 김·건다시마 수출 촉진
부산국제수산EXPO(BISFE) 공동주관
리스크안전망 구축 지원
수출기업 맞춤형 해외시장 조사
국내 공동물류센터 지원, 수출통합마케팅 지원
수산식품 수출유공 표창 및 브랜드대전 주관

수입 관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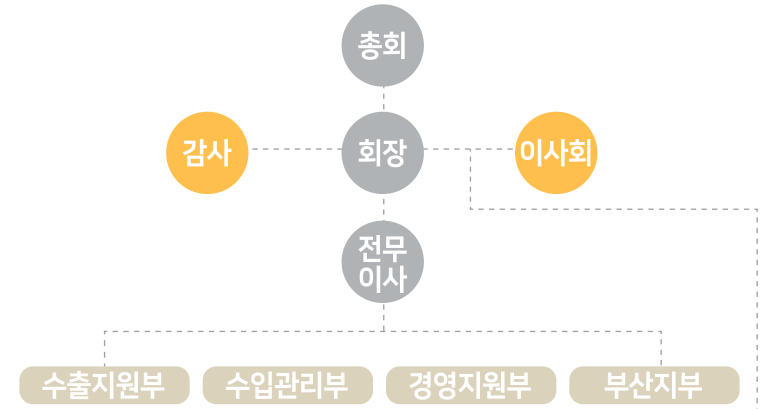
부장	김범성	02-6300-8801
차장	황국원	02-6300-8802
대리	염승민	02-6300-8803
주임	임세운	02-6300-8804
주임	김채원	02-6300-8805

수산물 TRQ 수입권공매·배분
새끼 뱀장어·김 할당관세 적용 추천
수입수산물 가격·유통구조 조사

부산 지부

지부장	남상정	051-231-8806(T)
과장	우승윤	051-231-8805(F)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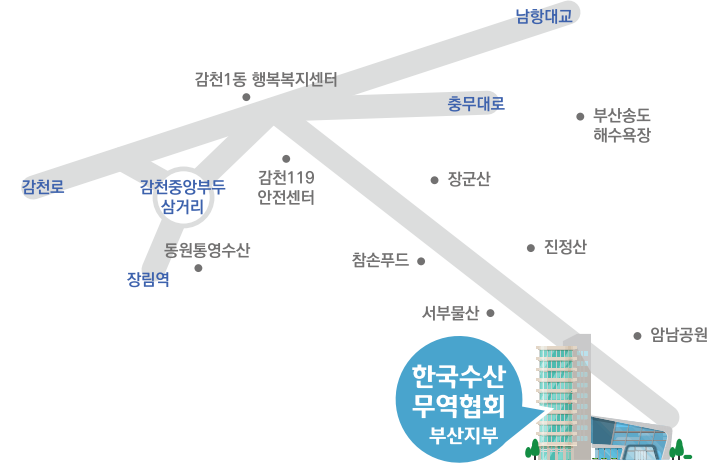


분과위원회

넙치수출분과	다시마수출분과	유통정보분과
전복수출분과	김수출분과	수산물수출협력분과
해삼수출분과	수산물수입분과	
해조류수출분과	수산물수출입운송분과	

본사 오시는 길 _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 (양재동 aT) 1103호

부산지부 오시는 길 _ 부산 서구 원양로 1 수산가공선진화단지 B동 7층



www.kfta.net

BISFE 2025

ufi Approved International Event

Busan International Seafood & Fisheries EXPO 2025

Nov.5. Wed - Nov.7. Fri BEXCO

Busan, Korea

Host BUSAN METROPOLITAN CITY

Organizers KOREA FISHERY TRADE ASSOCIATION bexco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Supporters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KOREA FISHERIES ASSOCIATION, Korea Overseas Fisheries Association, KOREA FISHERIES EQUIPMENT ASSOCIATION